

“불교, 통일 준비 로드맵 만들어야”

변화하는 남북관계, 불교 교류 전망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인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남북 단체들의 집단 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측 신년사를 긍정 평가한 것은 지난 연말 이후 살아나기 시작한 남북 대화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색 일로였던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간 것은 통일 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온 불교계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불교계 통일 전문가들은 신년 초에 이례적으로 정상 회담이 언급된 만큼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해가 분단 70년이 되는 상황이라 남북 모두 관계 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민족 통일을 위한 교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 운동 현장에 활동해 온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남한의 제안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관계가 개선될 지는 미지수”라면서 “그래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민간 교류 확대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불교계는 다양한 통일 운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조계종 민족공동

체진전본부(이하 민주본)가 오는 5월경 발표할 예정인 ‘불교통일선언’이다. ‘불교통일선언’ 발표를 위해 불교 통일 담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민주본이 개발하는 불교 통일 담론의 주요 내용은 화쟁사상에서 통일의 원리를 찾고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남북이 합심해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종도 올해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영통사를 중심으로 관음사, 안화사 개성 지역 3개 사찰을 참배하는 순례코스 개발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남북 불교 교류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로드맵 안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유환 교수는 “현재 평양과기대의 경우 기독교가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종교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 분야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교도 불교문화관과 의료지원·교육지원 사업 등 기반 지원 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 선언은 통일 한국에 대한 불교적 지향점이 담긴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장기적 계획 아래 지원 사업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범 소장은 “불교 통일 선언은 남북 불교간 합의가 함께 이뤄진 상황에서 발표돼야 한다”면서도 “불교 의례 전수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북한 불교에 전하는 것도 남북 불교 교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오는 1월 9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신년하례식과 대중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신년 하례 법회 후 이어진 대중사 법계품서식에서는 지선, 원경, 종진, 지유 스님이 법계를 품수 받았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종진 스님에게 법계 증과 가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불교중흥 위해 먼저 승가화합을”

“이제는 불교가 양자택일 이념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한겨레의 동질성을 자각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9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불기2559년 신년 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밑은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등 종단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제 스님은 신년 하례 법어를 통해 “올해는 불우한 이웃의 고난과 고통을 들어주고 대신해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중생 속에서 실천됐으면 한다”며 “작금 우리 불교계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 승가가 먼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 세상의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심을 잃지 않아야 자연히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하례에 이어 성우 스님의 전 계대화상 위촉식과 새로 대중사 법

계를 받는 지유, 종진, 원경, 지선 스님에 대한 품서식이 봉행됐다. 지유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품서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제 스님은 직접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으며 자승 스님은 대중사 품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불자를 봉정했다.

진제 스님은 품수식 법어를 통해 “망념된 마음이 다한 곳이 진여의 본성”이라며 “정신이 빈한한 이시대, 사바의 메마른 대지에 대중사들의 지혜가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사 법계 품수를 받은 스님들은 발원문을 통해 가행정진을 다짐했다. 종진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고불문에서 “바다같은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을 깊이 수지해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며 “이 인연으로 불조혜명을 잇고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번뇌가 여의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대구 동화사= 노덕현 기자

세계 평화기원대회 연등축제 함께 열린다

오는 5월 15~18일 광화문광장서

한국전쟁 위령제 비롯해 세계 평화 메시지 전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오는 10월 개최할 계획이었던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가 올해 봉축행사와 함께 열리게 됐다.

조계종은 1월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 15~18일 열리는 연등회와 함께 개최한다”면서 “현재 주무부서인 사회부와 연등회보존회가 세부 계획과 실무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 일정은 1월 중순 경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개최 의지를 표명한 행사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업비 3억 원과 국고 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신성민 기자

2015 현대불교 새연재

광복과 분단 70년 불기 2559(2015)년 을미년은 한국사회에도 불교계에 변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도 ‘정론직필을 통한 불법홍포’라는 교계 언론의 기치를 다시 한번 되짚고 뒤흔칩니다.

광복 70년, 불교 70년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불교 70년을 연중기획을 통해 분야별로 정리, 내일의 좌표로 삼고자 합니다.

신행단체 탐방

수행과 포교는 불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눈길끄는 신행단체들을 탐방하고 이들의 활약상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현대불교 입문·유석질의론

마즈다니 후미오가 저술한 <현대불교 입문>은 불교를 통한 삶의 지표, 함허 스님의 <유석질의론>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비교종교적 저서입니다. 두 저서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만남 그리고 향기

삶은 만남의 연속, 불교와 만나 불교적 삶을 살고있는 부부, 도반, 사제 등 인연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문화 속에서 만난 불교

현대사회는 많은 미디어들이 존재합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미디어 작품 속에서 불교 사상을 꽃피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살핍니다.

불교, 과학을 말하다

과학은 인류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과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합니다.

화폭 속의 선지식

동양화가 김홍석 화백이 그린 선지식들의 모습을 통해 스님과의 인연과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수록화로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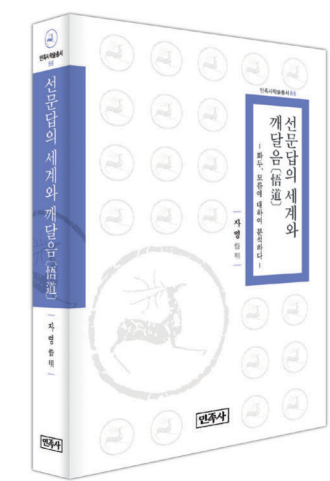
어린이 마음거울

조계종 포교원 발간한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를 지면에 소개해 마음이 아픈 다운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출판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지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벽송사, 봉암사, 공림사, 성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 찬란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유마경과 이상향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 화공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經典의 친절한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입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주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